

폭염에 맥뭉춘 젖소...원유생산량 크게 줄어

올여름 무더위로 인해 8월 중 원유생산량이 최근 10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가 최근 발표한 9월 낙농산업 주요지표에 따르면 8월 중 원유생산량은 17만1천4톤으로 전월 대비 4.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17만5천669톤에 비해서도 2.6%가량이 줄어들었으며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일일 평균 생산량 역시 5천516톤으로 전년 동월 5천667톤에 비해 2.6% 감소했다. 8월 중 원유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무더위와 함께 자주내린 비로 인해 젖소들이 고온스트레스를 크게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착유우 두수 감소도 원유 생산량이 줄어든 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중 착유우 두수는 21만3천두로 전월 21만9천두에 비해 2.9%가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21만7천두에 비해서도 1.9%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8월 중 유제품 생산량은 일일 4천558톤으로 전월 4천667톤에 비해 2.3% 줄어들었으며 발효유 역시 1천464톤으로 2.5%가 감소했다. 다만 8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총 141만3천325톤으로 전년 동기간 141만9천343톤으로 0.4% 줄어드는데 그쳤다.

더욱이 무더위는 유제품소비도 감소시켰다. 8월 중 백색시유와 발효유의 소비량은 일일 3천748톤과 1천436톤으로 전월 대비 각각 4.2%와 3.5%가 감소했다.

이처럼 국내 원유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유제품 수입은 소비량이 크게 늘어난 치즈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8월 중 치즈 수입량은 5천309톤으로 전월 대비 21.5%가 늘어날 것을 비롯해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는 567톤과 92톤이 수입돼 각각 3.7%와 12.2%가 증가했다

"농가부채 증가세...축산농가 6000만원대로 최다"

2008년 감소했던 농가부채가 지난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5-2009년) 농가부채 현황' 자료를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호당 농가부채는 2005년 2721만원, 2007년 2995만원까지 증가했다가 2008년 2579만원으로 감소했지만 2009년 2627만원으로 증가했다. 영농형태별 농가부채 현황을 보면, 축산농가가 603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용작물 3680만원, 화훼 3491만원, 과수 3333만원, 논벼 2627만원, 채소 2555만원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농가부채는 40대가 800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하 4913만원, 50대 4277만원, 60대 2419만원, 70대 이상 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농가부채는 한국농촌의 고질적 문제로 2008년 통계청의 표본가편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농가부채는 계속 상승세"라며 "농가부채 관련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더욱 완화하고 지원금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스퇴르 인수 '롯데·CJ·일동후디스 3파전'

파스퇴르유업 인수전에 다시 불이 붙었다. LG생활건강과 협상이 결렬된지 20여일만이다. 이번에는 롯데를 비롯해 CJ 일동후디스가 뛰어들었다.

지난 9월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식품사업 카테고리 강화를 위해 파스퇴르유업 인수를 적극 검토 중이다. 롯데칠성음료, 롯데햄, 롯데삼강 등 식품 계열사 가운데 인수기업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파스퇴르 대주주인 한국야쿠르트측은 현재 롯데를 포함해 CJ, 일동후디스 등과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현재 각 업체별로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라며 "아직 구체적인 인수가격이나 조건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협상 단계에서 가장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단연 롯데그룹이다. 1조원 규모의 종합식품기업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롯데삼강을 키우기 위해서다.

특히 롯데는 지난 2007년 롯데유유(현 푸르밀)를 그룹

에서 분리하며 우유사업에서 손을 뗐었다. 이번에 롯데가 파스퇴르유업을 인수하게 된다면 3년만에 우유사업에 재진출하게 된다.

한편 파스퇴르유업 지분 100%를 소유한 한국아쿠르트 는 최근까지 LG생활건강과 인수 협상을 벌여왔으나 인수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매각에 실패했다.

유대산정체계 개선안 생산·수요자 이견에 '오리무중'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 연구용역 발주 당시 원칙이었던 인센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와 기준연도를 놓고 생산자와 수요자들이이견을 보이고 있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는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해 전국 설명회를 비롯해 10차례의 소위원회회를 개최했지만 개선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에 대한 쟁점사항을 몇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예기간의 경우 일부에서는 1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2년으로 하자는 것이 생산자와 수요자간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대체계 도입 시기는 2년 후가 가장 유력하다.

다음으로 생산자와 수요자간 대립하고 있는 기준연도 변경 논란이다. 연구용역 발주 당시 2008년도를 기준으로 인센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올 초 구제역으로 인해 농가 설명회가 연기되면서 2010년 상반기 데이터가 변수로 등장했다. 실제로 충남대 박중수 교수팀이 2010년 상반기 데이터를 포함해 2009년도와 일반 유업체 데이터까지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가 4~5원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요자 측에서는 인센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원칙에 어긋난다며 기준연도를 2010년 상반기까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팀과 생산자측은 인센티브 인상액은 매년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수준이며 단백질요소를 포함시켜 오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단백질 요소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단백질 요소 도입 이후 생산자들은 생산비 상승을, 수요자 측에서는 인센티브 인상에 따른 제품 원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자들은 단백질 요소를 도입할 경우 사료값 인상에 대한 걱정과 함께 사양관리 변화와 개량에 대한 부담으로 생산비가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수요자측 역시 인센티브가 4~5원 상승하면 원유 값 100억원 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며 기준연도를 2010년 상반기로 인센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놓고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도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산 유제품 수출·명품화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소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포된 제주산 청정 유제품의 수출·명품화를 위해 성공사례 벤치마킹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행정, 유가공업체, 낙농가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구성해 오는 9월 29일 30일 낙농선지지 시찰을 했다.

이번 시찰에는 중국 등 생우유 수출에 성공한 유업체, 낙농체험 등을 이용한 1·2·3차 융복합 체험낙농목장, 자연방목을 활용한 산양유 특화 생산업체, 유기농 인증 등을 통한 명품유제품 생산·가공업체 등을 방문했다.

도는 이번 시찰을 통해 제주산 청정 유제품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고품질·특화된 유제품 생산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해 대도시 진출과 중국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소전염병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을 다양화하는 등의 중장기적인 축산업융합발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또한 제주산 우유의 연내 시범 수출을 통해 잉여원유의 판로 개척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